

슬픔은 나쁜 게 아니야

글_ 김형숙 이모는 인생 시간이 아주 짧은 사람과 그 가족들을 돕는 데 관심이 많은 간호사야.

그림_ 소경섭 삼촌



며칠 전 한 지역아동센터의 동무들과 실습을 마친 대학생 언니, 오빠(형, 누나)들과 눈물로 힘든 이별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동무들이 너무 슬퍼해서 지켜보던 선생님들 마음이 아주 아팠나 봐. 앞으로 작별인사 시간을 없애야 하나 살짝 고민했다고 하더라고. 이모는 깜짝 놀랐지. 혹시 동무들이 슬픔을 나쁜 거로 생각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거든. 정말 슬픔은 안 좋은 걸까? 동무들과 이야기해 보고 싶어.

먼저 동무들에게 이모가 읽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줄게. 슬픔을 원치 않은 소년에 관한 이야기야. 소년은 더는 슬픔을 겪지 않기 위해 자기한테 슬픔을 가져올 만한 것들을 모두 없애기로 했어. 그래서 언젠가 망가질 장난감, 영원히 살 수 없는 강아지, 떠날 지도 모를 친구, 그리고... 가족까지! 자신을 슬프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멀리하기 시작했지. 똑똑한 동무들은 벌써 눈치를 챌겠지? 맞아! 그렇게 소년도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것들이 사실은 모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소중한 것들이라는 것. 슬픔은 행복과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걸.

그러니까 그날의 작별이 많이 슬펐다면, 그건 지역아동센터 동무들이 대학생 언니, 오빠들과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말이 되는 거야. 함께 한 시간이 행복하지 않았던 사람이나 친하지 않은 동무들과 헤어진다고 우리가 슬퍼하지는 않잖아, 그렇지? 그때 동무들과 형, 언니들이 함께 흘린 눈물은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이 참 좋았어. 기억할게.'하는 표현이었던 거지. 그래서 나와 헤어지기 싫어하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싶어서 슬픈 와중에 행복을 느끼기도 해. 아마 그날 헤어진 형, 언니들도 많이 슬퍼해 준 동무들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했을 거야. 이모 생각에는 그 형, 언니들이 그 동무들을 아주 오랫동안, 특별하게 기억할 것 같아.

슬픔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앞으로 너무 슬픈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심하고 그냥 슬퍼하면 되지, 뭐. 눈물이 나면 울고, 눈물도 말도 안 나올 만큼 슬프면 그냥 말없이 손만 꼭 잡고 있어도 되고. 어쨌든 슬퍼하면서 좋은 기억을 잘 간직하고, 새로운 이들과 또 다른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지. 혹시 눈물을 겁내는 어른들이 있다면 씩씩하게 말해 보자. "슬퍼할 시간을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시간을 기억할 수 있죠!" 하고. 🍀

〈슬픔을 버린 소년〉(The Boy Who Didn't Want to Be Sad) 로브 골드블랫. 루크북스, 2009